提　出　文

國土統一院長官　貴下

이報告書를 『韓半島의 統一基盤造成으로서의 集中理論의 適用可能性與否』의 最終報告書로 제출합니다

1972. 11. 15

研究機關名: 東國大學校 安保研究所
研究責任者: 金　仁　鴻

目　　次

1．收斂理論의　基盤으로서의　産業社会観 …… 3

2．收斂理論의　起源 …… 11

3．收斂理論의　経済学的　側面 …… 19

4．收斂理論의　社会学的　側面 …… 29

5．收斂理論과　未来学 …… 45

6．收斂理論에　対한　共産圏의　批判 …… 53

7．南北　再結合을　為한　收斂理論　適用可能性의　与否 …… 61

1. 收斂理論의 基盤으로서의 産業社會觀

1. 收斂理論의 基盤으로서의 産業社会観

社会理論的 思考方式에서 産出된 가장 새롭고 現在로서 가장 影響力 많은 理論이 收斂理論이다. 主張의 骨字는 資本主義와 社会 社会主義라는 現代의 代表的인 이 두개의 社会制度가, 어느 程度의 長時日의 持続的인 接近過程을 通하여, 結局은 이른바 "単一的이며 現代的인 産業社会"가 出現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未来的 社会形成 (構造概念) 의 特徵으로서의 産業社会概念과 "産業社会時代" (時代概念) 라는 現代의 歷史的 時代概念이 收斂理論의 가장 重要한 成立要因이 된다.

여기서 産業社会観과 收論理論은 同一한 것이 아니냐 하는 疑問이 必然的으로 発生하게 될것이고, 만일 同一한 것이 아니라면, 이 두개의 理論사이에 介在하는 共通된 部分과 差異点, 그리고 相互作用的인 面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問題가 될 것이다.

이 두개의 理論이 어느 程度 하나의 社会理論으로서 定立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論理展開에서 나타나는 두가지 段階에서이다. 여기서 産業社会的인 概念이 그 初期段階이고, 基盤이 되며, 이 基盤 위에서 收斂理論이 展開되어 나간다. 그러므로 收斂理論의 断行的인 面 뿐만이 아니라 그의 発生条件과 社会的 機能의 把握을 위해서는 産業社会에 대한 理解가 그 前提가 될 수 밖에 없다.

"現代 産業社会"라는 発想은 50年代 中半期에서 일어나기 始作하여 継続的인 発展을 보게 되었다. 始初에는 대단히 一般的인 模糊한 資本主義社会의 未来像이었다. 現代의 大企業問題, 人口膨脹 大衆伝達方法, 大衆消費등등과 같은 것이 그 対象이었다.

科学 技術革命이 提起한 새로운 問題들을 이런 産業社会的 思考

로서 解明을 해보자는 것이다.

産業社会理論의, 最初의 歴史哲学的이며 社会学的인 接近은 Hans Freyer의 "西洋世界史"와 Arnold Gehlen의 "産業的 社会에서의 社会心理学的인 問題"라는 著書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어 Hans Freyer의 "現代論"과 역시 Arnold Gehlen의 "技術時代의 靈魂"에서도 이러한 接近이 試図된다. 이러한 책들에서 볼 수 있는 "現代産業社会"의 社会学的인 定義의 特徴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즉 人間의 疎外, 官僚制度化 혹은 "道具化" 그리고 産業社会의 "支配的慾求"로서의 "計劃楽観主義"와 "消費慾求"등이 그것이다. 또 官僚機構에 対한 人間의 "適応"과 "産業経済的 体制"의 圧力밑에서의 人間의 隷属등이 論議되고 있다. 이러한 事象의 大前提로서 技術에 依하여 支配받는 産業経済的인 圧力의 存在가 있으며, 人間은 거기에 隷属되고, 그것은 어떠한 社会秩序의 社会経済的인 構造와는 完全히 独立되어 있다는 것이다. 불란서의 社会学者이며 経済学者인 Jean Fourastie는 그의 著書 "20세기의 偉大한 希望"에서 現代社会에 미친 技術的 進歩와 労動生産力의 向上에 対하여 論하면서 다음과 같이 結論을 내리고 있다.

우리는 現在 農耕社会에서 産業社会로 移行하는 過渡期에 살고 있으며, 이 過渡期는 세가지 段階로 区分된다. 즉 産業化段階이며 그 마지막 段階에 서고 있는 것이 蘇聯이고, 産業膨脹段階와 消費財超過生産段階가 있는데 美国이 現在 그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方法論은 이미 独逸의 国民経済学의 歴史学派에 依하여 70年前에 試図된 経済段階説을 새로이 Faurastie에 依하여 複活시킨 느낌이고 그뒤에 美国의 W.W.Rostow에 依하여 継

承되어 発展을 보았다. 또 Harry G.Johnson에 있어서는 西方側의 몇개 国家는 이제 「富裕한 社会」로 変容하였다고 간주한다.

이 새로운 社会에 있어서는 「大衆이 資本家가 되며」, 거기서 解決해야 할 重要한 問題는 「富의 增大에 따라 일어나는 需要의 革新」이라는 것이다.[1]

그러나 이것은 Galbraith自身은 最近에 새로운 「産業国家論」을 展開하였는데[2], 이에 의하면 新産業国家는, 「工学構造」의 指導밑에서 200~300의 巨大会社의 움직임에 의하여 支配된다는 것이다. 이 「工学構造」는 資本과 生産物市場을 統制하는 同時에 政府 諸 機関과 緊密한 連結로서 機能한다. 또한 한편으로는 多少 独立的인 「教育者, 科学者階層」이 그 影響力을 強化하고, 그들은 어느 程度까지는 革新的인 変化를 招来하는 能力을 具備하고 있다.

요컨대 이 「工学構造」가 現実에서 社会를 管理하고, 同時에 「教育者, 科学者階層」이 未来의 社会에서 더욱 더 重要한 役割을 占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Miens에 依하여 発表되고, 그뒤 大戦前에 美国의 援助밑에서 行하여진 経済力 集中에 관한 새로운 事実의 発見은, 1940年代初 世界의 知識人들에게 커다란 衝撃을 준 「経営者革命論」과 그리고 二次大戦後의 冷戦的状況속에서 美国的 自由主義経済

註 1) Harry G.Johnson, "The Political Economy of Opulence", Money,Trade and Economic Growth,London, Sllen Unwin 1962.

註 2) Galbraith,The new Industrial State,Boston,Houghton Mifflin,1967.

論을 謳歌하는 「人民資本主義」論과 連結된 形式에서, 「所有와 支配의 分離」論으로서 強調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것은 유럽의 社会民主主義政党의 1950年代에 있어서의 一種의 標語가 되었고 다시 1960年代에 들어와서, 近代経済学의 伝統的인 아카데미즘의 메카인 캠부리지의 経済学者 Robin Marris에 의하여 한층 더 아카데믹한 方法에서 「経営者」資本主義로서 分析되기에 이른다.[3]

이때의 Marris의 分析視角은 「専門的 経営者」가 基軸이 되어 経済社会 全体가 運営되어 진다는 것이다. 즉 이제 株式市場은 収益보다도 오히려 配当에 依하여 어느 会社의 株式을 評価하려는 傾向이 많아 진다. 따라서 経営者들은 「株式買入提案」의 魅力을 弱化시키기 위하여, 株의 評価比率을 維持함으로써 그들의 支払希望 以上의 配当을 支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또한 現代에서는 資本의 蓄積過程에 있어서 私有財産制度의 不平等은 반드시 不可欠의 要因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無用의 長物로서 바뀌고, 個人株主가 現代의 株式会社의 運営에 큰 寄与를 한다는 것은 없어진다. 즉 株는 機関株主에 의하여 많은 部分을 所有당하게 되고, 株式会社는 主로 減価償還基金과 留保利潤에 依하여 投資資金을 調達하는 傾向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新古典学派의 経済学者들이 말하는 「節慾」과 「忍耐」를 必要로 하지 않고, 生産設備는 拡大되어 나간다.

이리하여 財産所得은 「忍耐의 報酬」가 아니고 有能한 株式仲介人을 雇傭하는데의 報酬가 된다. (Jeorge Robinson) 이어 1960年代 前半에서 Galbraith의 所謂 「私的貧窮과 公的貧窮과

註3) Robin Marris, The Economic Theory of Managerial Captitalism, London, Macmillan, 1964.

의 共存」에 対한 富의 社会的 優秀性의 問題가 유럽 新資本主義論의 中心的 標語로 登場한다.

다시 1960年代 後半이 되면, 未来社会에 対한 一種의 現代版 「유우토피아」思想이 왕성하게 提唱되기 시작하고, 세상의 注目을 받기에 이른다. 「이데오로기의 終幕」 (Damel Bell) 에 의하면 世界는 이제 「工業化以後社会」혹은 「脱工業社会」의 문턱에 서 있고, 거기서는 旧式의 工場代身에, 理論的 知識에 重点을 두는 「知的諸組織」이 活動의 中心이 되고, 意志決定은 漸次로 技術的 性格을 強하게 갖게 된다.

한편, 곽 같은 文脈에서 社会生活에서 中心的 役割을 하게 되는 것이 Ideopalis (理想都市) 라고 말한 것은 Clark Rerr 였다. Friz Machlup 도 知識産業의 急速한 発達에 注目한 사람이다.

한편 Kenneth E.Boulding 는 世界는 「文明以後」社会의 段階에 到達하였다고 말한다.[4] 이 段階에 이르면 世界는 「科学的 이데오로기」에 依하여 引導되면서 着実한 進歩를 보지만, 同時에 새로운 여러가지 問題에 直面할 것이 틀림없다. 특히 人口増加와 人類絶滅戦争이 그것이라는 것이다.

이것과 並行하여 組織된 集団에 依하여 支配되는 「組織革命」이 일어날 可能性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対하여 Herbert Marcuse 는 「Technotronic」時代의 到来에 対하여 警告를 発한다.[5]

이와같은 世界는 새로운 Technology 와 Elctronics 가 産業組

註 4) Kenneth E. Boulding ,The Meaning of the 20 th Century, New York ,Harper ,1965.

註 5) Hebert Marucuse ,One-Dmintioned Mar ,Boston ,Beacon Press ,1964.

織의 基礎가 되고, 그것이 資本主義的 管理下에 있든, 共産主義下에 있든, 人間의 内面的인 自由는 抛棄되고, 階級闘争 代身에 一種의 「大衆操縦」이 支配的이 되는것 같은 「一元的」社会가 된다는 것이다.' 또 Clark Kerr는 多元的 産業社会라는 模型으로서 一種의 管理社会論을 展開한다.

以上과 같은 여러 見解는, 合当与否는 고사하고, 現代産業社会의 特質을 包括的으로 把握하려고 한 説明原理이며, 構造模型인 것이다. 여기서 모두 그 基準으로 하는 支配階級은 実로 多彩롭다. 가령 労動, 官僚, 知識人一般, 消費者, 専門的経営者, 技術者, 科学者等等. 또 거기서 起動力 役割을 하는 要因도 참으로 多様하다. 가령 各 部門의 利益, 管理의 合理性, 消費者의 優越性, 会社의 遺産과 成長, 새로운 아이디어, 新技術등등. 그러나 이와같은 多様한 見解속에서도 하나의 共通된 底流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은 現代産業社会가 生産力의 拡大와 工学의 놀라운 発展을 基軸으로 하여, 새로운 社会観 내지는 歴史観을 要求하는 새로운 段階에 들어 갔다는 認識이다. 그것은 程度의 差異는 있을 지언정, 모두 生物学的, 進化論的 歴史観에 対하여도, 마르크스의 史的唯物論에 対하여도, 挑戦의 姿勢를 取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観点에서 새로이 登場한 収斂理論的 社会観은 現在 対立되어 있는 두개의 社会体制의 将来를 展望하는데 強力한 説明原理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收斂理論의 起源

2. 收斂理論의 起源

Convergence,Konvergenz 라는 槪念의 語源을 보면 라틴어 Convergere 로서 "무엇에 기울어지다, 접근하다, 한 점에 모이다" 라는 뜻을 갖는다. 이 用語는 원래 自然科学分野에서 使用하던 것이고, 幾何学에서 두 선이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 生物学에 있어서 生体 或은 比較的 類似한 環境의 適応으로 因하여 생기는 各器官의 機能이 類似性을 갖는 경우, 医学에서 두눈의 注視線이 눈 앞의 한 점으로 집중하는 경우등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 槪念이 社会現象의 어느 特殊한 様相을 説明하기 위해 社会科学者들, 特히 経済学者들과 社会学者들에 의하여 使用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이 理論을 한마디로 말하면, 現代의 두개의 社会経済的体制 즉 資本主義体制와 社会主義体制사이에는 相互 接近의 現象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두 体制는 現在 同一한 技術的, 社会的, 経済的課題를 안고 있고, 그것의 解決過程으로서의 未来의 発展方向은 반드시 비슷한 軌道에 오르리라는 結論인 것이다. 물론 이것은 現在 存在할 수 있는 몇가지의 共通된 特徴을 確認하는데서 오는 말은 아니다. 마치 生物学에서 獅子와 羊이 같은 哺乳動物로서 共通点이 発見된다고 하여 이 槪念이 適用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槪念은 共通된 特性이 発展過程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増加 즉 力動的過程을 通하여 두개의 社会体制가 結果的으로 서로 분란할 수 없을 程度로 変化를 이룰때를 말한다.

收斂에 関한 最初의 著書를 発表한 사람은 불란서의 経済学者 Raymond Aron이였다. 그는 1957年 "産業社会의 発達과 社会

的階層"[1] 이라는 著書를 냈고 이어 社会主義的体制와 資本主義的体制를 産業社会의 두가지 型으로 보고 両体制의 接近문제를 論한 "産業社会에 関한 18講義"[2]를 公開하였다. 1958년에는 美国의 経済学者 W.Buckingham에 의하여 나온 "比較的分析을 通하여 본 理論的経済体制"[3]란 論著가 있다. 그는 同著者가 実質的이고 機能的인 経済的 体制는 相互逸脱보다는 相互接近으로 나타난다"[4]라는것을 밝힌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著書의 마지막 部分 項目이 "하나의 単一的인 経済体制를 向하여" 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注目할만한 일이다. 그리고 美国의 蘇聯系 美国人 社会学者인 Pitirin A.Sorokin이 1960年에 "美国과 蘇聯의 社会学的 文化的接近"[5] 이라는 論文을 発表하여 많은 사람들의 関心을 喚起시켰었고 또이어 1964년 "現代의 基本動向"[6] 이라는 책을 著述하기도 했다. 그外에도 収斂理論에 関하여 보다 깊은 考察을

註 1) 参照 R.Aron. Die industrielle Gesellschaft.Frankfurt/Main und Hamburg 1964

2) R.Aron.Dix-huit licons sur la societe industrieiie. Paris 1962.P.246

3) Walter S. Buckingham.Theoretical Economic System.A Comparative Analysis. New York 1958

4) Walter S.Buckinham. 前掲書 P.26

5) Pitirim A.Sorokin.Soziologische und kulturelle Annaherungen zwischen den Vereinigten Staaten und der Sowjetunion.Zeitschrift fur Politik 誌에서 (Koln.Zurich.Wien) 1960. 제 4권

6) Pitirim A.Sorokin.The Basis Trends of Our Tirnes. New Haven 1964

한 사람으로서는 빠트릴 수 없는 사람이 Jan Tinhergen이다.[7] 두개의 社会経済秩序의 接近過程에서 必然的으로 形成될 "現代産業社会"는 収斂理論에 依하면 資本主義的이거나 社会主義的일 수는 없으며 오히려 両秩序의 短点이 止揚되어 長点의 統合이 이루워진다고 했다. 결국 이러한 産業社会概念의 適用이 바로 収斂理論과 産業社会的觀念의 接点이 되고 있는데 이와 関聯해서 蘇聯의 経済学者 E.Bregel은 "両体制를 同一視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正当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8] 라고 했고 Rostow에 依해 代表되는 産業社会的 思考方式은 社会主義体制의 未来問題를 조금도 考慮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問題視되는 것은 現代 資本主義가 겪어야 할 科学技術的革命과 거기에 随伴되는 人類의 将来에 関한 것 뿐이라는것이다. 결국 Rostow가 展開한 現代社会의 発展段階説은 資本主義社会에서만 適用될 性質의 것이어서 묵은 反共的理論의 再版에 不過한 셈이다. 그의 主張인즉 社会主義는 歴史的 発展의 歪曲이며 結局은 後退를 免치 못하는 사도인것뿐인데 그에 比하면 収斂理論은 社会体制의 正当性과 몇가지의 長点을 認定하고 있으며 反共的 思考를 止揚하고 社会主義体制의 発展可能性과 将次의 社会発展過程에서의 両体制의 相互作用도 挙論하고 있는셈이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自由陣営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問題提起가 収斂理論에는 있다는 点에서 이 理論의 特色이 찾아지는 것이다.

註 7) Gan Tinhergen.Do Communist und Free Economies Show a conviergging pattern? "Soviet" 誌에서 4月 1961 年

8) Of.E.Bregel.Die beiden sozialoRonomischen Systeme und die burgerliche Konuergenztheorie "Einheit" 誌에서, Berlin 1968. 4.5巻 p.499.

그런데 여기서 注目되는 点은 收斂理論의 理論家들이 대체로 自由陣営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点이다. 그러기에 共産陣営의 人士들은 이런 現象을 이 理論이 그 問題提起의 性格과 政策과의 聯関性으로 보아 自明한 것으로 看做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西独의 경우에서 찾고 있는데 西独에서는 Rostow의 産業社会 理論은 재빨리 紹介되고 普及되었지만 收斂理論에 関한限 오래동안 뿌리를 박지 못했었고 다만 몇개의 国外学者들에 依한 論文만 飜訳된바 있다. 이것은 즉 60年代初의 西独의 政策이 相異한 社会経済的体制의 共存과 그의 接近 혹은 協同을 可能케하는 어떠한 要因도 認定할 수 없는 것에서 온것이다. 西独의 国是가 바로 東独領土의 吸収에 있었고 그곳의 社会体制의 自由化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였다. 그러나 西独의 公式的 政策이 이러한 接近理論을 容認하게 되고 그 適用을 試図하게된 経緯는 무엇이였든가 그것은 바로 西独 学者들이 收斂理論이 社会主義의 変遷과 非社会主義的転向의 前提를 内包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데에 있었다. 帝国主義的 理論構成家들은 收斂理論家들의 理論的, 方法論的, 問題提起나 自由로운 政治的인 見解에는 興味가 없고 오직 政策的인 適用可能性에만 関心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 收斂理論이 露骨的인 反共理論이나 Rostow式 産業社会説보다는 共産国家에 対한 보다 나은 対決思想이라는 것이 判明된 1963年과 1964年부터는 西独에서의 社会科学的, 政治的言論은 收斂理論的 方向으로 나아가게 된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見解에도 不拘하고 收斂理論은 그 理論이 갖는 現実性과 政治的 機能의 効率性으로 보아 両体制의 어느 陣営도 無視못하는 理論으로 登場한 것이다. 사실 両体制에는 生産様式의 類似한 社会化段階, 技術의 類似한 発達状況,

一定한 問題에 關한 科学的探究의 類似한 発展傾向이라는 共通性이 있는만큼, 그것이 어떠한 이데오로기의 影響밑에 있든지 간에, 収斂理論家들은 이러한 事実을 土台로 그들의 理論을 展開해나가리라는 것이 明白하다. 그러나 그 結論이 무엇이며, 이러한 觀察에서 導出될 수 있는, 아니 理論的으로 一般化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가? 즉 하나의 現象을 理論的인 概念으로 다듬기 위하여 어떠한 中間物을 択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収斂理論이 안고있는 課題인 것이다.

3. 收歛理論의 經濟學的側面

3. 收斂理論의 経済学的 側面

收斂理論家들의 論証의 根本은 経済的 諸現象이다. 즉 両社会経済的体制에 있어서의 発展段階와 到達된 科学技術水準은 類似性을 갖고 있으며 결국은 收斂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美国과 蘇聯을 両体制의 代表国으로서 자주 比較의 対象으로 삼게 된다. 사실 이 両国사이에는 現在로선 모두 資本主義体制와 社会主義体制의 가장 発達된 나라로서, 科学技術의 発達에 있어서나, 工学과 農工業의 発達水準에 있어서나 根本的인 差異点을 発見할 수 없다는 点에서 比較의 妥当性을 보여주고 있다.

이리하여 收斂理論家들은 社会의 経済的, 技術的発展과 有関한 모든 다른 分野의 문제들도 原則的으로 같은 性質의 것이라고 主張한다. 이때에 이들은 方法論的으로 이미 産業社会概念에서 엿볼 수 있었던 方式을 取하여 모든 社会的問題를 経済技術的인 問題로부터 導出해낸다. 그러나 그들은 現存하는 状況뿐만이 아니라 将次의 発展도 함께 考慮해야 하기에 이 理論의 代表者는 이 両社会体制에 있어서의 経済的, 技術的, 発展은 両体制의 永続的인 接近을 実現하는 方向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主張하는 것이다.

네델란드의 経済学者 Jan Tinbergen은 이러한 過程을 다음과 같이 想定하고 있다. 즉 社会主義에서 볼 수 있는 옛날의 平準化傾向은 克服되고 物質的인 生産刺戟은 더욱 더 큰 意義를 갖는다. 企劃은 分化되어, 가장 現代的인 計劃方法이 適用되며, 経営에 参与하는 幹部들의 教育도 날로 向上되어 간다. 資本主義社会에서도 計劃의 必要性은 날이 갈 수록 強調된다. 経営의 公的인 範囲는 漸次的으로 拡大되어 가고, 税務政策과 이와 비슷한 措置는 企業家의 活動制限을 더욱 더 심하게 한다.

만일 両体制에서의 이러한 傾向이 継続 維持된다고 한다면, 結果的으로는 両体制의 長点이 合一하는 経済가 생길 것임에 틀림없다. 라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美国의 理論家 John.K.Galbraith 도 "産業社会에 있어서의 収斂傾向" 에 対하여 言及하고, 아래와 같이 結論짓고 있다. "発展은 結局 어느 程度 近似한 計劃, 組織形態로 이끌어갈 것이다"[1] 그런데 그의 이 問題에 関한 意義賦与는 다음과 같은 見解에서 表明되고 있다. "現在로서 가장 興味있는 現象은, 모두 일찌기 資本主義的이고 共産主義的이었던 두 会社가 이제는 서로 利害에 얽힌 여러 会社들 中에서의 支配的 位置를 占하면서 점점 類似性을 갖는 점이다"[2]

그리고 또 역시 오랫동안 美国에 居住하고 있는 독일의 経済学者 Fritz Sternberg 도 "모든것을 綜合하여 보건데, 地球上의 모든 民族과 国家는 結局 相互接近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3] 라고 말하고 있다.

함부르크 共同経済研究院 幹部이며 오랫동안 院長이기도 했던 西独의 経済学者 Heiz - Dietrich Ortlieh 亦是 같은 見解를 表明하고 있다. 즉 "世界的인 権力政治는 早晩間 西方側으로 하여금 程度의 差異는 있을지언정 完全한 計劃経済를 採択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이다. …… 市場経済型態를 取하느냐 計劃経済型態를 取하느냐하는 묵은 論争은 오늘날에 와서는 이미 興味밖의 일로 되어버렸다"

註(1) J.K.Galbraith, Die moderne Industriegesellsshaft, Munchen-Zurich .P. 429

註(2) 前掲書 P. 430

註(3) F.Sternberg, Wer beher scht die zweite Halfte des 20. Jahrhunderts ? Koln 1961. P. 333

그리고 더욱 重要한 것은 " 우리들로서 両秩序体制의 結合을 通하여 얻은 이러한 社会経済的인 事件을 어떻게 調整할 수 있을 것인가 "[4]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Bernhard Kopp 도 " 統合으로 나아가는 自由主義와 社会主義 "[5] 라는 그의 著書에서 前者들과 비슷한 見解를 表明하고 있다. Hans Ruhle von Lilienstern 과 Gert von Eynern 도 역시 이러한 綜合경향을 予言하고 있다.[6]

그러면 이러한 論理過程을 批判的으로 分析해 보면서 両体制間의 理論家들에게서 提起될 수 있는 몇가지 問題点을 찾아보기로 하자.

우선 社会主義体制에 있어서 社会考察의 基本課題라 할 수 있는 生産手段의 所有権문제는 어떠한가 하는것이다.

Aron 은 " 産業社会 "의 西方的 그리고 蘇聯的 変異사이에 存在하는 生産手段의 所有権問題의 差異는 " 些少한 問題 "라고 보고 있다. 역시 대부분의 収斂理論家들도 各其 뉴안스는 다르지만 現代経済에 있어서는 生産施設이 누구에게 所属되느냐. 投資를 누구가 했느냐 하는 것은 重要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가장 重要한 것은 生産過程의 管理者가 누 가 되느냐하는 것과 그 管理方法이라고 한다.

註(4) H.-D. Ortlieb, Das Ende des Wirtschafts-wunders, Wiesbaden 1962 P. 160

註(5) B.Kopp, Liberalis mus und Sozialis mus auf dem Wige zur Synthese, Verlag Antcn Haus, Maisenheim am Glan 1964

註(6) H.Ruhle von Lilienstern, Die Industrie wirtsdraft von morgen, Econ, Verlag Diesseldorf-Wien 1965 : G.V.Eynern Grundrissder politischen Wissenschaftslenre,Westdeut-Scher Verlag, Koln und Opladen 1968

왜냐하면 現代의 生産集中的에 있어서는 大多数의 株主로서 構成되는 資本社会에 依하여 大企業이 運営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 이 株主들은 配当金의 形式으로 그들의 投資를 現金化는 하지만, 実際的인 企業政策(生産計劃, 投資決定과 같은 것)에는 何等의 影響을 미칠 수 없게 되어있다. 生産管理나 会社一般에 関한 支配権은 当額의 報酬는 받으나 大体로 投資에 参加하지 않는 社長이나 経営幹部들의 手中에 있는것이다. 이러한 事実에서 보면 資本主義든 社会主義든 間에 大企業体의 管理運営은 高額의 報酬를 받으며 優秀한 能力의 所有者인 雇用人에 依하여 行하여지고 있어서, 그들의 決定과 影響力은 両体制에 있어서 더욱 더 重要性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生産手段의 所有権문제는 企業의 実際的인 運営面에서는 날이 갈수록 無意味해지는 것이며 結局 両体制의 接近過程에 아무런 妨害要素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思考論理는 일찌기 James Burnham의 所論에서 찾아 볼 수도 있다. 그는 1941년 "経営者革命"이라는 그의 著書에서 그에 대한 基本概念을 披瀝한바 있다.(7) 그러나 Burnham이 이 所有権문제를 다만 資本主義的立場에서 観察한데 比하여, 収斂理論家들은 社会主義体制에까지 이 問題提起를 拡大하고 両社会経済体制의 接近에 대한 論証으로서 利用하고 있다.

資本主義社会에 있어서 中央集権化와 規制가 強化되는데 反하여 社会主義社会에서는 分権化와 自由化가 일어나리라는 것이다. 社会主義社会에 있어서는 中央集権的인 計劃経済가 없어지고, 経営의 自律化가 形成될 것이며, 그러므로서 初期에는 政治的 習性으로 若干의 社会主義的色彩가 加味될 市場経済가 発生할 것이라는 것이다.

註(7) J.Burnham, The managerial Reualution, New York 1941

그리 하여 社会主義体制는 漸次的으로 現代資本主義社会와 類似하게 된다는 主張이다. 지금 社会主義国家群에서 行해지고 있는 經済的 改革은 이러한 過程의 좋은 参考가 된다는 것이다. 社会主義諸国에서 經済制度의 効率化를 위한 論議가 있었고 이어 融通性있는 經済計劃이 樹立되기 시작하므로서 經営決定權과 責任이 国民經済의 各管理分野에로 拡大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바로 이点에 対한 西方陣営의 論評을 보면 "經済의 利潤性을 追求하고 市場經済形成으로 内外를 代表하겠다는 새로운 所望"이라고 하고 있다.[8] 이에 関聯된 蘇聯에 関하여는 "Daily Telegraph" 紙가 다음과 같이 論評한바 있다. "計劃機構가 相当한 範囲로 解体되었고 市場經済로 代置되었다. 라고".[9] 그리고 Frankfurter Allgemeine 紙는 分明히 収斂理論的인 立場에서, 새로운 經済体制에서 보여 준 經済政策은 Marx 와 Lenin 의 理論과 모순되지 않는 方向에서 "西方側 經済体制에 接近하는, 것이라"고 主張하였었다.[10]

이와 비슷한 論拠는 오늘날 많은 經済学者들에 依하여 되풀이 主張되고 있는데, 西独의 東方政策専問家 Hans Raupach 는 1968년 어느 公開席上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이 새로운 計劃構想은 우리들에게 이미 익숙해진 經営經済的인 規準을 利用한 것이다. 이것은 結局 西方側에서는 資本主義로 돌아오는 始初로 解

註(8)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7 ~ 8. Mai 1964

註(9) E.Bregel 의 引用 Die beiden sozialokonomischen Systeme und die burgerliche Konvergenztheorie, Einhit 誌에서 Berlin 4/5 差 1968.P.504

註(10)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6 April 1964. P.13

釈할 수도 있을 것이다." [11] 라고. 이러한 現象들은 모두 収斂理論을 뒷받침해주는 셈이 된다. 社会主義諸国들도 어느 程度의 経済的発達을 이룩하면 社会主義的인 計劃方式은 더 以上의 効用性을 잃게되고 結局 資本主義的인 経営管理体制를 導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셈이다. 現代的인 技術은 오늘날 両体制의 発達段階에서는 原則的으로 同一한 性格을 갖고 있다.

따라서 生産技術的인 構造의 制約을 받게되는 現代的인 大規模生産을 為한 組織과 管理는 많은 類似性을 필수밖에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資本主義諸国에서 獲保된 現代的인 生産管理에 関한 새로운 知識들이 社会主義 諸国에서 修正된 形式으로 適用될 수 있다는 것은 妥当한 일이기도 한것이다.

이러한 例는 가령 새로히 開拓된 몇가지의 数学方法과 経済에 있어서의 그 適用에서도 찾을 수 있다. 反対的인 境遇로선 社会主義諸国에 있어서의 特定의 計劃運営이 資本主義経済体制에서 研究되고, 制限된 可能範囲속에서의 利用이 試図되고도 있다. 가령 社会主義的 計劃과 決算의 経験에 依한 原則위에서 Leontieff 에 依한 Input-output 方式의 完成이 그것이다. 이것은 Leontieff 自身이 蘇聯에서 導入한 投入産出 方法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資本主義가 언제가는 社会主義的인 것이 된다든지 社会主義속에 資本主義的 経済方法이 導入된다든지 하는것은 아니다. 다만 現代의 生産力이 갖는 社会的 性格에서 由来되는 数学的, 統計的 또는 組織的인 것들이 問題된다는 것이다.

註(11) H.Raupach, Kapital und Management in sozialistischen Volkswistschaften, Schmolers 年刊紙에서. 1968 5巻 P.519

아뭏든 収斂理論家들은 社会主義社会에서 資本主義的 要素를 漸次 受容하게 되므로서 結局은 制度에 内包된 社会経済的인 本質도 変하지 않을까하는 希望은 갖고 있다. 이러한 立場을 極端的인 形式에서 規定지은 사람은 Hermann Achminow 이다.

" 技術知識이 個人의 主導権을 合法化하고, 経営과 利潤参与에 더 많은 権限을 부여하고 이리하여 経済的인 環境変化가 利潤原則을 要求하게 되면, 計劃経済와 共産体制를 結局 互解시키고 마는 市場経済가 登場하게 될것이다 " [12] 라고 했는데 이와 比較하여, 社会主義陣営에 대한 西方의 思想的侵透를 어느 程度 認定하면서도 보다 相対方을 説得하기 위한 語調로서 主張하는 사람이 西独의 東方専門家 Hans Raupach 이다. 그는 어느 諸演席上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었다. " 投資財政의 資本主義体制가 갖는 優秀性은 社会主義에서의 社会主義化 過程에서 自然히 消滅된 資本市場을 위한 標準価格의 等価物이 造成되지 않는한 維持될 수 없다 " [13] ……라고. Raupach 는 社会主義体制에 있어서의 市場経済的 要素의 必要性이 直接 資本市場과 関聯된다고 하고, 資本의 復活과 그것의 自由化를 追求하였지만, Lilienstern 은 市場経済一般을 将次의 " 産業社会 " 가 어떠한 形態이든간에, 가장 基本的인 要素인 것으로 看做한다" 라고 했다. 여기에선 결국 이데올르기가 溶化된 새로운 世界는 市場経済가 支配할 것이고, 이 市場은 経済的均衡의 基盤으로 登場할것이다 " [14] 라는 것이다. 그는 社会主義的 経済体制의 決定的 要素인 中央集権的인 経済計劃의 意義가 이것으로서 強化되는데 대해서

註(12) Neue Gesellschaft, 1964. 5巻. P.422

註(13) H.Raupach 前掲書 P.522

註(14) H.Raupach 前掲書 P.30

는 確信을 갖고 있는듯 하다. "統制와 市場経済사이의 角逐論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것은 両体制의 評価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複雑化된 産業社会에 있어서는 両側이 다 必要로 하는 要因이기 때문이다. 다만 重要한 것은 処方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5]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몇몇 社会主義 理論家들 사이에 共感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놀라울 일은 아니다. 最近에는 이 문제에 関해서 여러 共産国家에서 社会主義経済体制의 発展과 効率的인 編成을 為해서 市場의 開放이 必要한 것이 아닌가고 論議된 적이 있는데 이것은 収斂理論의 論証과 内容的으로 一致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収斂理論의 経済的인 側面으로서의 가장 重要한 部分은 社会経済体制 속에서의 人民経済的인 観点을 個人企業에 있어서의 経営方式이란 視角에서 診断한다는 点이다.

즉 資本主義的 経営方式과 社会主義的 経営方式에 있어서 作業能率의 比較, 決定過程, 専門家의 協同, 責任管轄의 配分, 作業組織문제 등의 比較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많은 類似性과 類比를 確認하고, 이 分野에 있어서의 収斂現象이 社会経済의 発展過程에 따라 漸次的으로 増大되어 감을 論証해 주는데 아주 재미있는 研究部門인 것이다.

註(5) 前掲書 P.118

4. 收斂理論의 社會學的側面

4. 収斂理論의 社会学的 側面

収斂理論의 社会学的 根拠는 이 理論이 経済学的現実과 経済的領域에만 局限될 것이 아니고, 社会発達의 全般에 그 応用範囲를 拡大시켜, 社会生活의 各領域에서 이 理論의 論証을 찾아야한다는데 있다. 여기서도 技術科学的, 経済的 発達로 인한 所謂 〃現代的 産業社会〃가 論拠의 出発点이 되고, 따라서 이 理論의 経済的 側面과 社会的 側面은 不可分의 関係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社会学的인 論証의 代表的인 것으로는 有名한 西独의 理論家 Helmut Schelsky가 그의 著書 〃独逸社会学의 場決定〃에서 発表한 것이 있다. 〃가장 重要한 産業社会的인 問題들과 行動規準, 이를테면 大都市生活의 産業活動, 消費生活, 文化教育状況, 매스·콤機関등등은 서로 対立되는 政治体制, 가령 美国과 蘇聯같은데 있어서도 그 様相은 날로 비슷해가고 있는 実情이다. 이러한 社会的인 収斂現象은, 立場은 모두 다르지만 現代 社会学의 中心論題가 되어 있고 조금도 後退할 기미가 없다.[1] "未来世界를 위한 諸類型"이란 叢書의 発行者인 Hans Joseph Mundt도 다음과 같은 見解를 表明하고 있다. "技術化된 現代社会는 그것이 資本主義的 与件이든 社会主義的 与件이든간에 両体制는 그 全体에 있어서 類似性을 갖는 하나의 社会的現実로 誘導되어 나아갈 것이다."[2] ...라고 또 이 叢業의 "1985년

註1) H.Schelsky, Ortsbestimmung des deutschen Soziologie Dusseldorf/Koln 1959.P136

註2) H.T.Mundt, KompaBzahl 2000, Synthese und Neuorientierung..Wege ins neue Jahrtausend : Munchen/Wien/Basel 1964 P.2

의 世界"란 論者에도 "将次 技術知識이 普及되고 專門的 研究活動이 모든 産業国家들에 의해서 施行되므로서, 産業国家들 사이에 存在하였던 技術的 經済的能力의 不均衡은 解消되고 말것이다."[3) 라는 것이 있다. 이것의 結論에는 "이리하여 1985年에는 이미 超国家的인 経済単位나 団体가 存在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는 서로 広範囲한 分業이 形成되어 서로 強化된 商行為로 密接하게 連結지워질 것이다라고 되어있다.[4) 勿論 相互間의 政治的인 見解差異는 継続할 것이지만, 보다 現代的인 生産販売方式의 影響으로 方法과 概念에서 나타나는 差異点은 軟化되고 말것이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見解를 갖는 이로서는 Ralf Dahrendorf와 Fritz Baade 등이 있다. 이러한 主張의 根拠는 대개 社会的 発達은 直接的으로 技術, 経済的인 発達에 依하여 決定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収斂現象을 経済的인 側面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社会的인 領域, 特殊領域이나 特殊制度의 分野에서도 이 理論의 現実性을 論証하려는 試図도 행하여지고 있다.

美国人 Pitirim Sorokin이 西独에서 発表한 "美国과 蘇聯사이에서 나타난 社会学的, 文化的 接近에 関한 研究"[5)에서 美国과 蘇聯에서의 教育制度에 対한 類似性을 指摘하고 있다. 그는 여기

註3) Unsere Welt 1985, Modelle fur eine neue Welt, Verlag Kurt Desch Munchen/Wien/Basel 1967. P.291

註4) 前掲書 P.293

註5) P.A. Sorokin Soziologische und Kulturelle Annahrung zwischen den Vereinigten Staaten und des Sowjetunion: Zeitschrift fur Politik, Kolm/Zurich/Wien 1960/4 巻에서

서 蘇聯의 教育分野에서 成就한 業績을 높이 評価하고 〃오늘날 共産党員들의 教育水準은 美国 上流階層의 教育水準과 比하여 조금도 遜色이 없다〃[6] 라고 말하고, 資本主義国家나 社会主義国家들의 先進国에서는 教育制度에 있어서는 相互接近의 傾向이 있는것은 틀림이 없다고 하고있다. 역시 西独의 言論들도 〃分断된 西独사이에는 産業国家的 그리고 産業社会的인 発達이 進行되어서, 比較的 類似한 法則性이 支配하게 되었고 社会体制가 어떠한 것이든간에, 어떤 確定된, 그럼으로서 比較的 類似한 客観的인 反応이 要求되기에 이르렀다〃[7] 라고 하였다. 이러한 西方側의 教育文化的 側面에서의 接近説에 対하여 東方側 理論家들의 反駁을 参考的으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社会主義的 教育制度는 옛날의 支配階級에 依하여 独占되었던 教育을 打破하고, 社会의 모든 構成員들에게 各自의 能力에 알맞는 教育을 実施하는 것을 原則으로 삼고있다. 더욱이 各自의 素質을 啓発하고, 이제까지 認識되지 못하였던 能力을 発掘하는데 힘쓴다. 이것은 바로 人格啓発이 社会的 与件과 密接한 関係에 있다는 것을 말할뿐 아니라, 社会主義에 있어서의 科学的, 技術的 需要에 質・量両間의 適応이 何等의 矛盾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反하여 資本主義諸国에 있어서는 教育의 危機가 論難되고 教育制度와 大学의 改革에 対한 要求가 높아져가고 있다는것이다.

둘째, 教育이란 知識伝達 機能 以外에도 가장 重要한 機能으로서 人間形成問題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両体制와 密接한 人間像, 世界像問題와 結付되기 때문에 教育의 比較한 이 점을 빠트려서는 안되

註6) 前揭書. P.295

註7) H.Voigt, Bildung fur die Zukunft, Vandenhoeak und Ruprecht, Gottingen 1967, P.10/12

는 법이다. 바로 여기서 그들의 接近的思考의 幻想을 発見할수있다. 遙遠한 人間主義的인 青少年教育과 文化性이 豊富한 個性과, 社会主義社会에 있어서의 높은 公德心을 갖춘, 人格의 函養을 위하여 努力하는 社会主義教育은 文化的, 人間的 価値의 蔑視傾向이 날로 높아가고, 人間思考와 感情이 現代的 大衆伝達方式에 依하여 操作되고 平均化되어가는 資本主義社会와는 좋은 対照가 될 것이다. 이러한 対応은 東西独의 경우 顯著히 나타난다. 問題는 教育에 있어서의 知識의 量이 아니라 教育의 內容인만큼, 類似性의 문제는 正鵠을 잃은 것이다 라고 하고있다.[8]

Sorokin은 또한 社会科学과 哲学分野에 있어서의 類似性에 対하여도 言及하였다. 그에 의하면 마르크시즘의 発達과 成熟過程은 西方側 이데올로기와의 接近을 証明해주는 좋은 例라는 것이다. 즉 〃過去 20년간 蘇聯의 学者들은 歴史, 心理学, 精神医学, 倫理学 그리고 其他의 社会心理学的인 分野에서 많은 分量의 一流級 理論을 発表하였지만, 하나도 弁証法的 唯物論의 色彩라든가, 어떤 다른 唯物論的인 立場에서 研究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9] 는것이다. 그는 또한 弁証法的 唯物論에서 볼 수 있는 〃閉鎖的인 理想主義〃와 〃客観的인 理想主義〃와의 類似性에 対하여도 言及하고 있다. 거기에서 Sorokin은 〃또 이와는 反対로 大部分의 美国의 哲学者들은 너무나 理想主義的이고 理性為主이며, 오히려 〃統合的〃이라고 할 수 있을 傾向에 속한다고한다. 그러나 그들

註8) Herbert Meißner, Konvergenztheorie und Realitat. Akademie Verlag, Berlin 1969. PP.79

註9) P.A.Sorokin 前掲書 P.349

의 思考方式에서는 非唯物的인 世界観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唯物論的이 아닌가 할 程度의 色彩를 많이 보이고 있다〃[10] …라고 여기서 우리는 어느 程度 哲学과 世界観問題는 技術，経済的인 分野에서의 収斂現象보다는 論証의 虚弱性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Sorokin의 唯物論者를 観念論者로，観念論者를 唯物論者로 代置하는 式의 接近理論은 너무나 相異한 論理라 아니할 수 없다.

収斂理論의 社会学的 論拠를 提示한 사람중에서 有名한 美国의 経済学者 John Kenneth Galbraith를 빠트릴 수 없다. 이미 引用한바 있지만 그의 著書 〃現代 産業社会〃에 包含된 그의 理論은 여러가지 側面에서 아주 意義가 크다. 그가 過去 自由世界에서 차지한 政治的 比重과 現代 資本主義発達理論家로서의 그의 卓越한 業績은 아주 括目할만하다. 英国 労動党의 指導的 理論家인 John Strachy도 한때 Galbraith를 現代 資本主義의 가장 卓越한 経済理論家로서 指目한 일이 있다. 여기서 引用하려는 그의 最近의 著書는 1967年 美国에서 発刊되어 곧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다. 1968年에 이미 独逸語版이 나와 3萬部가 買売된것은 그의 思想의 大衆에 대한 影響力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取扱하려는 것은 그가 이 책에서 論한 収斂理論的인 部分만이다.

Galbraith는 現代生産의 工学과 組織은 自動的으로 体制의 収斂으로 誘導된다는 前提에서 出発한다. 즉 〃経済体制의 形式은

註10) 前掲書 P.352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工学과 組織의 要求에 의해서 決定된다〃[11]고 말하고 있다. 어떠한 経済体制에 있어서도 現代的 生産의 工学과 組織은 一定한 構造와 一定한, 技術的인 条件下에 있는 権力関係, 그리고 그것에 対応하는 同一한 目的을 造成하는 方向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이 点에서 그는 모든 西方側 理論家들과는 그 見解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理論의 特徴은 특히 西独에서 主張되고 있는, 〃現代 資本主義와 社会主義的 発展過程에선 市場経済論的인 思考方式이 나타난다〃라는 理論에 賛成하고 있지않다는 点이다. 그는 現代의 生産力은 生産의 計劃과 規制가 그 必須的인 与件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美国에 있어서의 生産의 中央調節과 統制, 市場과 消費者의 操作이 얼마나 높은 水準에 到達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대단히 興味로운 美国経済의 現地資料를 提示하고 있다. 西独의 理論家들이 아직도 数十年동안 絶対的인 것이라고 생각해 오던 하나의 公式, 즉 市場経済는 곧 自由와 通하고, 計劃経済는 곧 独裁라는 思考方式을 새로운 技術科学的인 発展様式에 応用하려는데 반하여, Galbraith는 이것을 하나의 退任된 市場経済的인 유토피아論으로 보고 〃無制限의 自由競争을 要求하는 者는 自由企業体制의 職業的인 辯護人과 純粋芸術의 擁護者들 뿐이다〃[12]라고 指摘한다. 그는 또한 社会主義国家에서의 経済改革을 다른 西方側 理論家나 言論家들과는 달리 中央集権的인 経済統制의 漸進的인 崩壊라고는 보지 않는다.

註 11) J.K.Galbraith, Die Moderne Industriegesellschaft. Droemersche Verlagsanstalt Ch.Knaur_Nachfolger München/Zürich 1968. P.19.

註 12) 前掲書 P.64

"蘇聯의 大企業의 生産과 生産手段과 労動力供給 — 즉 生産決定— 에 있어서는 企業이 統制없는 市場에로 隷属되어가는 傾向이라고 現在로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現在의 工学의 状態로서는, 工学과 関聯된 時間과 資本의 消費라든지, 市場機能에 工学이 影響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蘇聯, 美国 両国에서는 아직 不可能한 問題인 것이다"라고 [13] 大部分의 西方側 理論家들과는 달리 Galbraith의 収斂理論은 若干의 調節統制의 色彩를 띄는 基本的인 面에서의 市場経済秩序의 造成에서 出発하는 것이 아니라 反対로 資本主義的인 或은 社会主義的인 条件下에서 中央集権的인 計劃統制를 随伴하는 生産의 効率的인 高度의 集中에서부터 出発한다. "現代의 大企業과 現代의 社会主義的인 管理機構는 같은 目的에 奉仕하는 두개의 相異한 機構이다" [14] 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Galbraith는 "管理機構"의 推象的 類似性의 比較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資本主義와 社会主義에 꼭 같이 適用되는 새로운 社会的 聯関性과 法則性을 発見해보려고 했다. 이러한 試図에서 그는 工学과 統制에서 発生되는 要求가 専門家에 対한 企業産業의 需要와 組織化된 配置의 必要性을 漸次的으로 높여주었다는 状況에 直面한것이다. 이리하여 그는 재빨리 다음과 같은 広範囲한 結論에 到達했는데 그것은 즉 "産業体制는 여기서 大部分 그의 影響圏밖에 存在하는 潜在力을 捕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고 業体는 資本으로서 自身을 돌볼 수 있을지 모르나 専門技術者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過去의 経験으로 보아

註13) 前掲書 P.128
註14) 前掲書 P.128

하나의 새로운 權力移動은 期待될만하다고 하였다. 現代資本主義의 鋭利한 観察者로서 Galbraith는, 科学이 資本主義的 生産에 있어서 相当히 큰 役割을 하게 되었다는 것과, 物質生産과 科学의 相互作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認識했든 것이다.

物質生産의 科学化와 더불어 資本은 漸次的으로 科学에 隷属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그러나 科学研究와 그 結果의 生産技術的인 応用은 抽象的이고 真空状態에서 行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勘当할만큼의 訓練과 経験과 能力을 가진 人間과 直結되는 문제라고 이해했다. 이러한 専門技術家들(技師, 技術者, 経験者, 푸로그람作成者, 資料処理者, 社会心理学者, 数学家 등등)의 役割과 意義는 現在로서 相当히 크다는 것은 疑心할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現代技術의 発達状態에서 起因하는 것이므로, 原則的으로 資本主義에 있어서나 社会主義에 있어서 다를바 없다는 것은 周知의 事実이고, 그 意義도 両社会体制에서는 共通的으로 重大한 것임은 말할나위가 없는 것이라고한다. 그러나 Galbraith는 如上한 理論으로 그의 論理展開의 大綱을 끝내고, 結論을 지였는데 그結論 部分에서 비로소 問題点이 露出되었다. 즉 確認된 事実들에 対한 社会学的인 解択과 分類, 該当 또는 社会的 聯関性과, 論理的 帰結에 対한 分析과 理論的 説明에 関한 문제등이 바로 그것이다.

Galbraith의 主張인즉 専門家群은 그들의 不可欠性으로 因하여, 어느 程度의 独立性을 獲得하고, 거기에서 하나의 새로운 社会的인 權力位置를 形成한다는것이다. 그는 또 〃動機誘発〃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項目을 設定했었는데 이것은 이러한 專門家들이 찾이할 経済的 建策과 決定權을 말한것이다. 利潤追求는 経済活動의 動機인데 이 專門家들은 資本所有権에 参与하지 않으므로써 利潤과는 無関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現代社会에 있어서의 새로운 支配機能으로서의 経営을 Galbraith는 위와같이 相当히 狹小한 範囲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는 経営에 参与하는 콘체른幹部들, 監査役들, 그리고 其他의 雇傭幹部들은 그 決定権에 있어서 完全히 独立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들은 여러 情報와 情報処理, 專門家들, 各 分野에 걸친 專門家들에 依한 建議와 研究結果등을 必要로 한다고했고 이러한 專門家群을 그는 〃테크노스라크추어工学構造〃라는 概念으로 特徴지웠었다. 즉 〃이러한 集団은 그 規模가 相当히 큰것이다. 그것은 企業의 上部指導層에서부터 監督, 職工長, 職工에 까지 이르는데 여기에는 專門知識, 特殊能力 혹은 経験을 集団的으로 構成하여 決定에 参与하는 사람들이 属하는것이다.

集団的 決定에 参与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機能을 나타내는 組織의 名称은 없으나 그는 이러한 組織을 〃工学構造〃라고 表現할 것을 提議한것이다〃[17] 이러한 Galbraith의 생각은 다름이 아니라 企業의 最高幹部에서 職工에 이르기까지 程度의 差異는 있을지언정 모두 経済的決定에 参与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 사이에는 社会的, 経済的 利害対立은 없으니 모두 함께 새로운 社会的 階層인 〃工学構造〃에 所属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生産行為에 従事하는 모든 사람, 最高幹部에서부터

註 17) 前掲書 P.75

職工에 이르기까지, 모두 単一的인 社会階層이라고 보는데는 問題가 있다. 生産過程에 있어서의 人間의 相異한 地位, 서로 다른 社会的 位置, 収入의 差異, 이러한 要因들로부터 帰結되는 相異한 部分的으로는 対立까지 되는 経済的 利害関係 ─ 여기서 由来하기 쉬운 相異한 政治的 利害와 行為 ─ 등을 그는 단순히 黙殺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그의 見解에 依하면 이러한 것은 問題가 되지않는다. 왜냐하면 生産의 各段階와 여러가지 形式에서 이루워지는 企業決定에 所属員들이 参与한다는 것은 새로히 相互間을 結束하는 基準으로 看做되기 때문이다. 이 工学構造는 이제까지 自由陣営의 理論家들이 主張하는 経営者支配도 아니고 共産陣営의 修正主義者들이 要求하는 知識人의 支配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経済와 社会에 参与할 수 있는 새로운 調和된 "国民共同社会"인 것이다. 여기서는 한편으로는 資本의 権限이 崩壊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共産党의 権勢와 이데올로기가 消滅되어 가리라는 것이다. 이미 한때 主張되었던 "国民資本主義"라는 方法論과는 달리 調和있고 矛盾없는 "産業社会"라는 이 새로운 概念은 그 根拠를 所有権関係에서 抽出한것은 아니다. 이 国民資本主義論者들은 모든 国民들에게 国民株式을 갖게 함으로써 所有権者가 되게하고 経済的, 社会的 権力을 賦与케한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思考는 지극히 非現実的이고, 사실이 実現을 為한 実際的인 試図에서도 失敗한 적이있다. 여기에 있어서의 中心課題는 所有権문제이었다. Galbraith는 이 所有権문제를 度外視하였고, 現代 大量生産이라는 現象을 現実的인 契機와 理論的인 観点에서, 技術, 経済的인 条件을 観察함으로써 그의 所謂 "単一的인 産業社会"論을 展開시킨 것이다. 이것으로서 그는 또한 自由陣営의 代議政治에서 導出한 経済民主主義라는 社会民主主義的

인 幻想과도 그 次元을 달리하게 된다. 여기서 그는 現代 大量生產을 社会学的으로 大観함으로써 両社会体制의 収斂現象에 대한 새로운 論証을 試図한 것이다. 여러 社会制度의 収斂現象에 関한 社会学的 論拠의 하나로서 現代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의 役割에 関한 문제가 있다. 50년代초期부터 많은 刊行物에서 다음과 같은 意見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즉 技術, 経済, 社会의 発展에서 나타나게되는 同一性은, 이제 体制를 달리하는 東西陣営에, 같은 問題点을 提起하고 있고 따라서 이 問題解決을 為한 理論展開는 同一한 것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趨向에서 본다면 両体制의 이데올로기的 対立은 漸次的으로 無意味하게 될것이라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終来〃 〃이데올로기時代의 終幕〃 이라는 題目의 書籍이 나오기 시작하였는바 〃現代의 解剖〃라는 책에서 David Norowity는 말하고 있다. 〃資本主義対 社会主義〃의 싸움은 経済統制의 量的인 것과 質的인 것의 싸움으로 還元됨으로, 対立되는 이데올로기의 敎対感情은 純化되고 말것이다〃 [18] 여기서 또 그는 脱이데올로기的 現象은 蘇聯圈에서도 始作하고 있다고 主張한다. H.Raupach는 〃蘇聯의 社会経済論을 研究할적에는 되도록이면 이데올로기와 理論을 区別하라〃 [19] 라고 말한다. 그리고 같은 곳에서 〃蘇聯経済의 現在의 状況과 傾向은 学問的으로는 이제 이데올로기로부터의 経済解放이라고 特徵지을 수있다〃 [20] 라고 말한다.

註 18) D.Horowity,Anatomie unserer Zeit-Kapitalismus und Sozialismus in Schmelztiegel Europa Verlag,Wien/Frankfurt/Zurich/Stutlgart 1964. P.65

註 19) H.Raupach,Wirtschat und Politik in Osteuropa,Duncker und Humblot,Berlin 1968. P.150

註 20) 前掲書 P.151

西独에서 出版된 어느 또 다른 書籍에서는, " 資本主義와 共産主義의 이데오르기란 19 世紀의 産物인 것이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의 世上에서는 適用될 수 없는 것이다…… 万一 우리가 急템포로 変하는 現代의 社会的制度를 明確히 理解한다면, 우리 들에게 익숙한 理論들은 이미 過去에 속하는 것이고, 未来에 適用될 수 없는 것이니 만큼, 우리 들은 되도록이면 그러한 理論에 執着하여서는 안된다는 事実을 直視하지 않으면 안된다. "(21)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科学的, 技術的 革命이 이데올로기株殺의 趨勢로 몰고간다는데 대해서 反論이 없는 것은 아니다. Karl Steinbuch는 現代의 科学과 技術은 人類에게 特定한 目的을 達成시키기 위한 手段을 供給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手段이 점점 強力해지고 技術이 完璧해짐에 따라서 그 使用과, 이것과 連結되는 目的設定에 対한 人類의 決定은, 더욱 더 広範囲해지고 그 結果는 더욱 더 深刻해지고 있다. 이로서 経済的, 政治的, 軍事的 目標들과 그러한 것의 밑바닥에 깔린 여러 利害関係에 対한 問題는 測定할 수 없을 程度의 現実性을 띄게 되는 것이다. Steinbuch는 여기서 하나의 正当한 帰結을 얻는다. 즉 " 이제는 보잘 것 없는 人間의 힘이 엄청나게 큰 힘을 誘発하게 된다 스위치 하나로 무엇이든 할 수 있게된 人間에 있어서의 重要한 문제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 이제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一連의 価値문제는 모든 人間的 思考, 모든 社会学, 政治, 哲学의 中心的 課題가 될 것임은 틀림없다. "(22) 이것은 바로 社会

註(21) D.Magee, Die Demokratische Revolution, Europa Verlag, Wien / Frankfurt / Zurich 1966. P.8

註(22) K.Steinbuch, Falsch programmiert, Deutsche Verlagsanstalt, Stuttgart 1968. P.57

的 目的과 目標設定, 規範과 価値思想들과 關聯하여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質的인, 새로운 社会的인 意義로 크게 浮刻될 것이리라는 것을 뜻한다. Ralf Dahrendorf는 근자에 말하기를 "이데올로기가 終熄할 때가 왔다는 것은 広範囲한 政治的構想時代가 지났다고 했다. 특히 世界觀的인 깊이를 갖는 政治的 思考는 現代로서는 받아들여지지 못한다"[23] 라고 하였다. Ernst Topitsch도 역시 이데올로기時代는 지났고, 現代人의 特徵은 이데올로기에서 解放된 世界觀을 갖는데 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하여 世界觀的인 문제는 스스로 解消되고 마는바, 그것은 答을 発見 못해서가 아니고 対象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24] 大部分의 脱이데올로기 論者들은 이데올로기와 科学사이의 關聯性에서 말한다. 科学에 対한 이데올로기의 影響은 점점 衰退해가며 科学의 보다 낳은 発展을 위해서는 이데올로기는 오히려 害롭다는 것이다. 여기서 Barion의 이데올로기와 科学에 対한 規定을 살펴보고 両体制에 있어서의 脱이데올로기的 現象을 考察하는데 参考로 삼을까한다. "이데올로기는 閉鎖된 体系이며 어떠한 理性的 批評에도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만 外部의 誤謬만 認知할 뿐이다. 이데올로기는 믿음을 요구하지만, 科学은 認識에 대한 꾸준한 努力인것이다. 이데올로기와 科学은 基本的인 面에 있어서 서로 和解할 수 없는 反対物이다."[25] 여기서 말하는 科学이란 특히 이데올로기가 強調되는 諸社会科学을 뜻하는 것이다.

註(23) R.Dahrendorf 前掲書

註(24) E.Topitsch, Sozialphilosophie zwischen Ideolcgie und Wissenachaft, Luchter hand Verlag, Neuwied am Rh, und Berlin 1966, P.179

註(25) J.Barion, Was ist Ideologie? Studie zu Begriff und Problematik, Verlag H.Bouvier & Cc., Bonn 1964, P.106

5. 收斂理論과 未來學

華北大水論證與辦法

5. 收斂理論과 未来学

收斂理論의 妥当性은 이 理論의 未来志向的인 性格으로 보아 근자에 活潑히 論議되는 "未来学"과 不可欠의 関聯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未来学"과 收斂理論과의 対比的 考察에서 이 理論의 未来的展望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이 両理論의 相互関聯은 먼저 그 課題設定에서부터 시작한다. 모두 未来社会에 있어서의 発達과 傾向을 研究하는데 다같이 그 目標를 두고 있다.

그러나 收斂理論家들은 이러한 問題를 全體的인 社会制度의 将次의 発展, 社会主義와 資本主義라는 두개의 社会體制사이에서 豫見되는 相互作用이라는 観点에서 다루지만, 未来学에 従事하는 사람들은 経済, 技術, 科学과 社会 各分野에 걸처서 볼 수 있는 未来의 発達傾向만이 興味의 対象이 된다. 즉 그들은 2000年代에 있어서의 交通制度의 発達이라든가, 食生活을 為한 海洋의 開発이라든가, 技術科学의 革命에 따르는 教育의 開発, 都市計劃의 問題, 家族関係의 未来象等等을 取扱하며 이러한 発達이 遂行되는 社会経済的인 背景은 二次的인 問題로 取扱한다. 未来学에 있어서는 資本主義社会는 存続하며 未来에서 惹起되는 여러 問題는 그 社会體制 속에서 解決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만일 未来学者들이 社会制度와 그것과 聯関되는 社会経済的인 特徵을 取扱하는 경우에는 대개 收斂理論的인 立場을 取하는것이 보통이다.

未来学者들이 收斂理論家들과는 달리 社会의 全體的인 制度에 그다지 興味를 보이지 않는것은 그들의 主観的인 立場에도 不拘하고

하나의 客観的인 関係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複雑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대단히 簡単한 것이다. 社会的状況을 考慮의 対象으로 삼느냐 하는것의 与否나, 経済와 社会의 特殊한 分野를 相互分離시켜서 研究한다는 것이나, 모두 主観的 興味아니면 研究当事者의 事情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収斂論者나 未来学者나 그 問題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方法論的인 基本方向에서는 客観的으로 보아 共通되는 点을 갖고 있다. 즉 모두 人類의 未来의 発達状況을 무엇보다도 科学技術的 経済的変動이라는 観点에서 取扱한다는 점이다. 社会的 問題－家族関係의 形成에서부터 国家制度에 이르기까지－는 오로지 科学技術的, 経済的 発達의 結果로서 생기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여기서 이들이 看過한 것은 이러한 社会的 諸関係는 受動的인 現象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오히려 反対로 社会経済的인 要因이 科学技術的, 経済的 過程에 影響을 미치며 그것을 促進도 하고 抑制도 하며, 可能하게도 하고 妨害하기도 할 結果를 낳게도 하는 것이다. 이런 側面의 考察은 特히 科学的 社会診断에 있어서는 不可欠한 것이다.

이러한 観点에서 이제까지 未来診断에 属한다고 할 수 있는 이른바 文明批判에 対한 思想的 内容의 検討가 必要할 것 같다.

文明批評을 大別해 보면 Oswald Spengler·Friedrichs A Hayek Wilhelm Ropke 등이 갖는 悲観論的인 社会観과 現代의 産業技術을 経済的 理性의 表現으로 肯定하는 Max Weber的인 楽観的인 社会観이 있다. 이러한 潮流의 中心点인 位置를 占하고 있다고 보이는 Karl Jaspers는 '世界의 偶像打破'와 '技術世界의 発達'이라는 글에서 이러한 努力을 通하여 実質的인 自然征服이 可能해

지고 이로서 人類史는 비로소 本軌道에 오를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現代市民社会가 갖는 이러한 思考方式이 歴史哲学에 미친 影響은 이제 分明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 世界史의 解釈과 時代区分을 技術 産業의 発達이라는 角度에서 判断하는 傾向은 바로 그 証拠로서 看做될 수 있을 것이다. (Arnold Gehlen, Hans Freyer) 그동안 肯定的으로 再評価되고, 理性의 表現이라고 云謂된 独占資本主義에 있어서의 技術, 経済의 発達은 作為的으로 確定된 歴史像을 改造하고 새로히 浮刻시키는데 하나의 原則으로서 利用되었다.

二次大戦以後에 있어서의 自由世界의 知識人들이 独逸 팟시즘에 대한 蘇聯의 勝利를 새로운 社会體制의 勝利라고 보았을때, 社会主義陣営이 形成되었을때, 蘇聯의 原子力生産이 美国과 比肩하게 되었을때, 帝国主義勢力이 崩壊되고 科学技術的 革命이 새로운 問題로서 登場하였을때, 이제는 技術産業의 発達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政治的 権力配慮를 意識하게되므로서 다시 悲観論이 支配하는 時期가 오게 되었다. Ohio 大学의 Hays 教授는 '現存하는 個人的企業體制를 救済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国際的으로 널리 알려진 経済学者 Seymur Harris 도 '이렇듯 病든 體制로서 社会主義의 侵入에 対抗할 수 있다는 保証은 없다' 라고 말하였다. 主로 政治的 原因으로서 説明될 수 있는 戦後悲観主義的 状況에 있어서 技術化라는 思考方式이 内包한 資本主義的 이데오르기는 하나의 救援으로서 登場한다. 이러한 状況에서 展開된 産業社会論과 나중에 이 理論위에서 構築된 収斂理論은 技術化라는 論理를 빌려서, 戦後의 悲観主義에서 脱皮하고, 資本主義社会発展의 積極的인 本을 設計하여, 모든 技術的, 産業的, 経済的인 未来問題를 資本主義的 方式에서 解決할 수 있다는 解明을 提供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役割을, 意識을 하든 안하든간에, 未来学이 하고 있는 것이다.

收斂理論과 未来와의 関係에서 또 다른 하나의 様相은 收斂理論의 未来는 어떠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收斂理論은 다른 여러 理論이 그러했듯이, 短期間의 하나의 流行論으로 끝날것인가, 아니면 長久한 세월을 通해서 影響力을 미칠 社会理論으로 存在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누구나 同時代人의 評価와 함께 社会理論이 많은 変遷을 겪고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러한 豫見的인 問題提起에 対하여는 至極히 慎重한 態度로 臨해야한다는 것은 当然한 이야기이다. 우리로서 어느 程度의 正確한 答을 얻기 위하여서는 規準設定이 必要한 것이고, 이 応用限界에 따라서 評価의 可否가 成立되는 것이다. 여기서의 関心은 다만 全體社会制度에 関한 社会理論과 이데오르기의 概念에 関한 것이 問題가 되는 것이지, 特殊한 経済政治的, 社会学的, 理論이 問題가 되는것이 아니라는 点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原則을 設定할 수가 있을 것이다.

1. 民主的이며 自由主義的인 手段에 符合하여야 한다.

2. 両體制의 政治的, 経済的, 競争의 特殊한 条件을 考慮하여야한다. 万一 体制에 対한 悲観論的인 見解와 분위기가 支配되었을 경우 이를 극복하고 다시 未来에 対한 楽観과 自信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事例는 이미 1929年과 1932年사이의 世界恐慌에서 볼 수 있었다.

3. 모든 理論의 効率性은 当時의 政治的인 方向과 一致하여야 한다.

4. 이 理論의 効率期間은 与論化할 수 있는 時間과 正比例한다. 한 概念의 理論的 構成에 있어서의 複雑性과 単純性, 一般市民들에게 있어서의 説得作用의 程度, 概念의 難易등은 重大한 意義를 갖기 때문이다.

以上과 같은 点은 社会科学的인 理論의 存廃에 関한 条件임은 明白한 일이다. 이런 条件을 充足시키는 程度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効率과 期間은 保証될 수가 있다. 실지로 経済的 哲学的 理論史를 보면은 대부분 이러한 条件들을 充足했음에도 不拘하고 当時의 政治的 指導力의 戦術的 基本概念과 矛盾되므로서, 혹은 그 理論의 構造와 論証이 複雑하여 大衆의 理解를 얻지 못하므로서 完全히 失敗한 경우가 許多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条件밑에서 収斂理論을 検討해본다면, 대부분의 条件은 充足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것들은 이미 前章에서 説明한바가 있음으로 여기서는 두가지 観点에 관하여만 이야기하기로 한다. 収斂理論의 潜在的인 大衆効果에 있어서는 이 理論의 根本理念이 至極히 簡単하여 모든 사람의 理解에 難点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두 體制가 언젠가는 合致한다는 이 内容은 구태여 両體制를 理解하지 않고서도 쉽게 把握할 수 있는 題目인 것이다. 反対되는 體制에 대한 싸움을 準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結局 하나의 希望的인 빛으로 보이게 될 것이며, "結局 事態는 그렇게 될 것을!" 하는 분위기를 造成하는데 큰 役割을 한다.

또 하나의 観点은 収斂理論의 도움으로 하나의 새로운 広範囲한 社会理論의 展開가 可能하다는 点이다. 収斂理論的인 基本思想은 비교적 새로우며 現代의 世界政治的인 権力布石에서 発生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収斂論者들은 各其의 問題에 대한 定義와 思想

과 全體的 概念을 收斂理論的인 思想體系로 整理하고 理論的으로 展開하여 어느 程度 流全的이고 合理的인 社会理論으로 完成시킬려고 현재 애쓰고 있다. 가령 生産과 所有權関係의 否定을 하나의 社会的構成의 體制決定的인 要素로 본다는 것 등이다.

여기서 이러한 理論의 適用을 相異한 両體制로 拡大시켜 이 理論의 意義를 높이고 있다. 所有權関係의 無意味性을 理論的으로 確立하는 努力과 새로운 "階級概念"을 連結시킨 独立된 "経営者理論"을 이제는 社会主義에게까지 適用하여 "工学構造"라는 概念으로 拡大한 것은 하나의 좋은 例라 할 수 있을 것이다.

何如튼 現在와 未来의 歴史는 반드시 하나의 法則性위에서 進行된다고는 할 수 없고, 많은 併発現象과, 豫見할 수 없는 退行状況도 있을 수 있는 만큼 歴史的 現実은 理論에서 発見된 法則性보다는 훨신 多彩롭고 多 하다는 것을 念頭에 둘 必要가 있을것 같다.

6. 收斂理論에 對한 共産圈의 批判

6. 収斂理論에 対한 공산권의 批判

64年 4月 모스크바에서 열린 "現代 브르좌사회의 収斂理論"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共産世界 学者들은 부르좌사회의 収斂理論을 부르좌理念의 早期理論이 論理的으로 継続 発展된 것이라고 帰結지웠었다. 그들에 의하면 서방세계의 同 理念은 経済的 発達의 工業的 類型을 類似性과 統一性을 識別하는 観点에서 보지 않고 単一的인 産業社会의 概念만을 가지고 現代의 発達된 여러나라를 본다는 것이다 즉 経済成長 段階의 概念에 立脚해서 世界 모든 나라의 社会的 発展이 統一的으로 이루어져 간다고 봄으로써 資本主義와 社会主義의 接近과 収斂이 可能하다는 論拠를 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방측 수렴이론가들의 追従者들은 両 体制의 経済的인 메카니즘이 平衡되기 마련이라고 보는 바 이것은 두 体制가 모두 生産活動의 実際에 있어서는 "利潤"을 目的으로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이 経済的인 메카니즘이란 経済的 規範의 単純한 外形만이 아니고 어느 確定한 社会的 諸 関係까지도 具現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방측의 収斂理論을 東独의 政治史家인 G.Rose는 "낡은 世界의 새로운 Mythos"라고 한마디로 結論지은 바 있다.[1] 즉 그는 W.Ulbricht와 K.Hager의 収斂理論에 対한 見解에 同調하면서 서방측 収斂理論을 아주 단순한 것이라고 단정했는데 Rose의 주장은 다음項에서 자상히 다루기로 하고 為先

註 1) Gunter Rose:Konvergenztheorie- ein neuer Mythus der alten Welt, In:Zeitsohrift fur Gesohichtswiassenschaft,Berlin (Ost), Heft 1/1967. P.20

이곳에서는 V.Stoljarow의 論拠를 곁들여 要約해 본다.

Stoljarow도 "K.Marx의 哲学的 理論과 그 意義"라는 강연에서 서방측 収斂理論家들의 論拠를 한 社会의 制度的 性格과 社会機構의 総体를 度外視한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2] 그러나 서방측 理論에 의하면 産業技術革命時代에 있어서 유럽의 国民経済가 모두 接近하고 있는 現象은 必是 資本主義와 社会主義도 論理整然하게 脱이데올로기 傾向에로 接近한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政治와 이데올로기를 除外한 経済, 国家, 芸術 및 文学分野에는 同 理論을 適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共産圏의 見解로서는 이것조차도 容納되지 않고 있다. 왜 서방측의 収斂理論이 共産世界에 받아 들여지지 않나를 Herbert Meißner와 G.Rose의 論証을 들어 綜合해 보련다.

東独의 理論家인 H. Meißner는 서방측 収斂理論을 다음과 같이 批判한 적이 있다.

그는 71年 10月 프랑크프르트에서 함부르크 "Die Zeit"紙의 편집장인 M.G.Donhoff女史에게 출판·문화賞이 내려질때 Donfoff女史가 同 式上에서 行한 収斂理論에 関한 演説을 引用批判한 바 있다. Donhoff女史는 말한다. "西方 世界에는 지난 百年을 通해서 Karl Marx를 肯定, 또는 부정하는 아무런 政治哲学이 나오질 않았다"[3] 고. 이 말을 Meißner는 敷衍해서 다음과 같이 註解했었다.

註2) Vitali Stoljarow:Das System im Marxismus, In:Neues Deutschland紙, P.6·(1968年3月23日字)

註3) H.Meißner:Konvergenzdenken von der Wirklichkeit Bedrangt, In:Einheit,Heft 12/1971, P.1041·

收斂理論이란 맑스·레닌주의에 対한 理論的인 아니 実質的인 공격을 위해 대두된 것이다. 즉 社会主義를 말살시키기 위한 하나의 Doctrin으로서 創案된 理論이지 두 体制의 差異와 政治的変化를 全的으로 等閑視한 理論일 뿐이다. 달리 말하면 伯林大学의 経済学者인 K.C Thalheim과 같은 反共主義者에 의해서 收斂理論의 立場에서 粗雜한 方法으로 社会主義의 没落을 예측하는 따위에나 適用되는 理論인것 뿐이다. 数三年前에 西方世界의 社会学은 두 社会秩序의 接近傾向이 모든 社会生活 全盤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検討한 바 있지만 同 研究検討는 理念的인, 哲学的인, 아니 社会科学이라는 学的인 面에서 볼때엔 別다른 意義와 成果가 없는 것이었다.

Donhoff女史가 收斂理論의 肯定的인 立場을 取하는 데는 東西를 莫論하고 人間의 思惟는 제각기 社会秩序의 옛 発展段階를 是認하는 観念을 갖고 있다는 데서 그 論理展開가 시작되었지만 Donhoff女史가 한가지 識別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것은 즉 西方世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市場経済가 継続 機能을 発揮한다는 観念을 갖고 있는 반면에 共産社会 人間들은 역시 K.Marx의 理論에 対한 確信을 갖고 있다는 점을 識別하지 못했거나 혹은 그것을 認定하지 않은 点이다. 달리 말하면 두 체제속의 人間이 제각기 다른 観念을 갖고 살아오는 동안에 두 社会秩序는 서로 異質的인 다른類의 発達을 보이게 되었고, 그리고 또 事物의 実質的 存在에 関한 人間의 観念이 確固히 다르게 되었다는 점을 認識하지 못한 때문이다.

오늘날 資本主義 여러나라의 政治家들이나 思想家, 学者 및 言論人들이 資本主義에는 반드시 自由競争이 完全히 行해지고 있다고마

는 確信하지 않는다는 것을 MeiBner는 主張했다. 그는 例를 들었다. 지금 어느 교수가 대학 강단에서 오늘날 資本主義가 市場経済로서 完全한 自由競争을 行하고 있다고 강의 했을때 그것을 額面 그대로 믿을 学生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4]. 그러나 共産世界에서는 맑스주의는 맑스의 認識을 立証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政治的 체험과 科学的 方法의 基底위에서 맑스, 레닌주의를 発展시켰을 뿐더러 実状況의 変化해 가는 過程속에서 그의 理論的 体系를 完成시켰다.

Donhoff 女史의 主張에는 事実에 対한 人間의 観念이 事実自体보다 観念이 훨씬 強하다는 것이 있다. 이 말은 결국 事物에 対한 人間의 観念이 事物 自体보다도 훨씬 重要하고 강하기 때문에 真実이 決定的인 것이 아니고 真実에 対한 人間의 観念이 더 重要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Donhoff 女史가 収斂理論에 対한 不調理하고 출렬한 結論을 내린것 밖에 않는단다.

왜냐면 공정히 말해서 오늘날 그러한 主体 —— 観念論的인 見解를 肯定하는 知性人이 其実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要컨대 이것은 理性의 強度와 証拠의 確信力만이 언제나 真実과 合致되는 人間思惟를 가져 오기 마련인 때문이란다. "難関에 부딪힌 수렴이론이 앞으로 어떻게 그 理論을 변명해 展開해 나갈 것인지 우리에게는 궁금할 따름이다."라고 하고 있다.[5]

H.MeiBner가 위와같이 수렴이론을 批判했는가 하면 G.Rose의 同 理論 批判은 아래와 같다.

1968年 東独 外交紙에 실린 "두 世界体制 接近에 関한 小論"

註4) H.MeiBner의 前掲書. P.1403.
註5) H.MeiBner의 前掲書. P.1403.

이라는 論文에서 그는 G.F.Kenan, W.W.Rostow, J.K.Galbraith, Z.Brezezinski 등등 美国의 代表的 수렴이론가들을 一括 批判하되 저희들의 말을 引用하면서 하나 하나 反証했었다. Z.Brezezinski와 S.P.Huntington이 말한 바 있는 수렴이론의 根本的인 것은 "蘇聯과 美国이 서로 비슷하게 되어 간다는 外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이러한 体制的 変化는 結局 蘇聯에서만 현저히 볼 수 있을뿐 美国은 依然히 복지와 자유를 維持해 갈것이다." 6) 라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結局 蘇聯만이 漸次 美国과 같은 현상에로 변모한다는 것이 된다. 同 理論은 結局 資本主義가 発達된 나라의 大衆만이 <캐피탈리즘>을 人間의 自然法則的 発展策으로 여기고 또한 人間社会의 永久的인 社会形態로써 同調할 뿐이지 社会主義的인 변혁을 위한 闘争은 無意味한 것으로써 度外視한것 밖에 되지 않는다.

技術革命의 経済的 過程에서 두 社会制度가 융합 또는 接近한다는 論証의 실마리를 얻은 W.Buchingham과 J.K.Galbraith, 그리고 効率的인 두 体制를 Optimal한 経済構造에로 変形시킨다는 仮説을 내세운 J.Tinbergen, 그리고 経済体制 뿐만이 아니고 社会体制 즉 経済的인, 政治的인, 理念的인, 文化的인 諸 関係가 単一体로써 交互的인 융합과 接近傾向을 보인다고 証示한 P.A.Sorokin 등 諸氏는 모두 資本主義와 社会主義가 対立되어 있는 敵対的인 性格을 아주 소홀히 다루었다고 Rose는 批判한다.

다시 말하면 서방측의 수렴이론가들은 生産手段에 있어서 私有財

註 6) G.Rose:Die Legende Von der Annahrung der beiden Weltsysteme, In:Deutsche AuBenPolitik,Berlin 1968, Sonderhelt 2, P. 162~172.

産이나 아니면 社会的 資産을 위한 것이냐 하는 制度的 差異의 根本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두 体制에 있어서 大量生産의 所有와 使用이 完全히 다르다고 하는 根本的인 差異点은 生産力의 発展과 生産機構에 있어서의 部分的인 外的 類似性만으로는 결코 밝혀지지 않는 법이라고 Rose는 주장한다. 資本主義的 生産의 目的은 오늘날도 Marx와 Engels의 生存時와 마찬가지로 역시 利潤일 것이다. 그러나 社会主義的 生産方法에서는 대량생산은 社会的 蓄積의 財源이 되고 나아가서는 教育制度나 文化領域과 같은 社会 諸 分野의 要求를 充足하는데 奉仕하는 것이다. 즉 社会主義的 生産方式이야말로 個人과 社会間의 歴史的으로 자란 모순을 超克시켜 社会主義的 民主主義를 具現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모든 社会事象은 제각기 経済的인 사회변환과 制度的 性格에 特徴지워져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資本主義와 社会主義의 結合이란 두 社会制度의 社会, 経済的 不相容때문에 不可能한 것이라고 Rose는 보고 있다.7)

註 7) G.Rose의 前掲論文, P. 171.

7. 南北再結合을 爲한 收斂理論 適用可能性의 與否

7. 南北再結合을 為한 收斂理論 適用 可能性의 与否

위의 諸節에서 수렴이론의 概念과 그 目的 그리고 同이론에 대한 贊反의 諸論拠를 概観해 보았다. 이제 아래에서 同이론이 우리의 南과北 再結合을 為한 長期的 諸試図의 論拠로써 適用될수 있나 与否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分裂에서 統一에로 흐르고 있는 世界文明의 時潮에서 볼때, 세계의 国家群이 各己 理念과 体制는 다르지만 高度의 산업화에로 발전해 가는 途程에서 충돌이나 破局을 避하고 平和共存하기 為해 国際協助를 積極化하리라는 경향은 쉬이 내다 보아진다. 그런데 이 국제협조의 적극화 경향은 一九世紀의 遺産인 <国民国家의 理想>이 世界人의 脳裡에서 점차 흐려져 갈때 그 템포를 더 빨리하게 될것도 自明한 일이다. 그렇다면 高度化 산업사회에로의 途程에서 人間이 政治的인 国家目的보담 平和속의 人類福祉를 더 重要視하게 될때, 従来의 政治理念은 修正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体制 형성이 시도되지 않을것인가도 断定하지는 못한다. 이미 一次大戦後부터 国際協助의 무-드는 크게 일었었지만 二次大戦後 冷戦体制를 초극하고 평화공존을 유지하기 為한 국제협조 경향은 더욱 高潮되었었다. 이 共存과 協助무-드속에서 산업사회의 未来像을 그린 学者들이 있었는바 이들이 바로 R.Aron이나 R.A.Sorokin같은 수렴이론가인 것이다. 両次大戦後의 人心의 변화가 人類福祉를 願하게 되었는바 高度의 산업사회를 向해가는 두 体制는 어떠한 수렴과정을 겪어 単一化된 산업사회를 낳을 것인가라는 仮説을 연구한것이 바로 수렴이론인 것이다. 즉 同수렴이론은 한말로 해서 어데까지나 高度化된 산업사회를 前提한 것이기 때문에 近代化의 歴程을 거친 欧美의 東西国家間엔 同이

론에 대한 賛反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南北처럼 開発途上에 있는 社会形勢下에선 民族分断의 起克때문이긴 하지만 同이론의 適用 与否 論議란 無理한 試図이기도 한것이다.

그러나 同이론이 提示하는 中核이, 첫째 工業化 過程에선 体制差異에 関係없이 生産手段의 기술과 管理層이 脱이데올로기 경향에 스게되고, 둘째 経済活動의 効率化를 為해선 閉鎖社会도 그 開放이 不可避하다는 것, 셋째 풍요한 福祉社会에선 Dogma的 世界観의 変化가 일는다는 것, 넷째 異質体制間의 交流에선 優秀体制에로 人心의 変化가 기운다는 것. 등등이고 보면 他意에 依한 民族 分裂의 초극을 為해 우리가 同이론을 適用 시도해 보려는 것도 全然 不当하지는 않다.

勿論 同이론의 否定論者(大部分 共産主義者들임)들은 同이론이 資本主義와 사회주의와의 体制差異를 軽視했다하여 자본주의 体制維持와 아울러 사회주의의 没落을 종용하는 不条理한 이론이라고 論駁하지만, 戦後 世界의 変化様相을 보면, 全面 否定할수 없는 이론인 것이다. 왜냐면 二次大戦後 二〇余年間에 있었든 東西 国家群의 体制的 변화는 同이론이 適用되었든 아니였든 間에 산업사회에로의 途程에서 일어난 理念의 修正이요. 体制의 改革이었다고 볼적에 同이론이 提示하는 未来社会에 対한 仮説이 非論理的인것은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同이론을 우리의 民族 再結合을 為해 適用할수 있는가를 検討하는 것이다. 그러나 同이론의 適用 可能性을 立論하기에 앞서 먼저 戦後 東西 国家群이 어떠한 体制的 変化를 겪었는가를 略述해 본다.

첫째 西方社会의 기업경영 実態를 보면 공산주의자들은 依然히

자본주의가 無産者를 착취하는 利潤 独占制度라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오늘의 기업실태가 되었다. 勿論 企業主의 生産手段이 利潤을 目的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바 없다. 그러나 지금 市民社会의 民主化는 企業主의 独占的인 資本축적을 合理的으로 阻止시킬수 있는 水準에 와있다. 共産主義者들이 일컸는 소위 <푸롤레타리아>즉 工場의 賃銀労動者와 各生産部門의 勤労者들은 被착취자의 입장을 벗어나서 中産市民이 된지 이미 오래前이며 労動組合이라는 政治的인 圧力団体를 通해 그들 自身이 資本主의 独目的인 기업경영을 阻止하고 있는 현실이다. 西欧社会의 賃銀労動者가 資本家에게 人権을 유린 当했다는 事例는 저들에게 이미 그 옛날의 神話가 되어버린 것이다.

둘째로 공산사회의 기업실태는 어떻게 변모했나를 보자. 중앙집권적 計劃経済 体制라고는 하지만 生産高가 높아지므로써 国家経済 自体는 勿論이려니와 労動者의 生活向上도 기획되는 것이기에 저들도 역시 利潤 増大를 為해 그 나름으로 기업의 管理体制를 개선 시도하는 경향이다. 例컨데 蘇聯의 Lieberman 理論을 비롯해서 불가리아의 Kunin 경영 改編論 유고의 소위 競争社会主義(Konkurenzsoziali-smus)그리고 체코의 Ota Sik 教授의 市場 定着的인 사회주의 (Marktorientierter Sozialismus)이론등등이 모두 그 좋은 例이다. 아래에서 불가리아와 유고를 中心으로 보다 많은 利潤獲得을 위해 東欧圏의 기업경영 실태가 어떻게 改革되었나를 살펴 보겠다.

첫째 불가리아의 경우 발칸의 <小蘇聯>이라고 불리우리 만큼 政治的 自由化가 全無인 곳인데도 経済政策을 보면 利潤의 増大를 為해선 政治秩序에 紊乱이 없는限 経営実態를 改編해 보자는 시도가

있었다. 즉 불가리아政府는 党 中央委員인 同時에 経済学者인 Kunin教授의 経営 改編論을 받아드려 이를 실시해 본바 있는데 Kunin教授 理論의 要旨는 아래와 같다. 가) 労動者가 製品의 品質이나 利潤에 興味를 갖도록 個個人에게 物質的 刺戟을 주라는 것, 나) 利潤을 내지 못하는 企業에 対해서는 国家補助를 중단하고, 그리고 各 企業에 対해 経済的인 独立性을 부여하라는 것. 다) 各 企業에 対한 中央委의 指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個個 기업이 <이니시어티브>를 갖고 企業間에 競争을 할수 있도록 勸奬하라는 것 등이었다![1] 소피아 近郊의 繊維工場 하나를 모델으 選定하여 구닌教授의 経営論을 施行해 본 結果 그 成果는 매우 좋았다. 年間計劃이 十一個月에 이미 完遂되었는가 하면 製品의 質도 오히려 더 좋아졌고 또 従業員의 給料도 平均 10%가 引上되었었다. 물론 아직까지도 구닌理論을 合法化한 経営 改編 施行令은 나오지 않았지만 불가리아는 그 後 줄곧 위의 実験 施行을 示範삼아 経済 自由化에로의 새로운 指針을 研究中에 있다.

둘째 유고의 경우인데 "収斂理論의 이론과 実際" 라는 모델은 아마 유고에서 찾을수 있지않나할 程度로 이 나라의 소위 競争社会主義는 興味있다. 五八年의 新綱領 採択에서 유고는 참된 社会主義에로의 途程이 반드시 共産主義的 発展을 겪지 않아도 可能하다는 것을 밝혔다. 즉 最近의 資本主義 動向을 보면 産業国有化, 国家投資의 増大, 個人資本의 制限등등 예전과는 다른 変化를 하고 있는바 저 状態下에선 반드시 資本主義的 矛盾은 격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된 社会主義에로의 途程에선 労動組合, 民族革命運動,

---

註 1) 党 理論雑誌<노보 부레메>의 63年12月号

社会民主党의 역활도 無視할수 없다는 要因이라는 것이다. 이같이 独自的인 社会主義体制를 為해 西方体制의 Positiv한 要因을 받아드린다는 것을 綱領에도 밝혀둔 유고는 生産手段에 있어서 能率과 利潤 為主로 아주 Flexible한 体制를 갖추고 있다. 例컨데 모든 기업을 労動者에게 譲渡하여 그 運営 一切를 労動者에게 委任하므로써 소위 <労動者 自主管理>라는 制度를 만들어 놓고 있다. 즉 労動者에 依한 기업의 自主管理는 一般 労動者中에서 選定構成된 <労動者 評議会>에 依하여 遂行되고 있다. 이 <労動者 評議会>는 또한 기업경영의 실무를 全担하는 <経営委員会>도 구성할 뿐더러 企業経営者的 立場에서 모든것을 企劃하기도 한다. 즉 製品의 種類 및 価格決定, 収益의 配分方法, 企業의 확장을 為한 諸企劃, 従業員의 任免決定 등등을 決議하여 経営委員会에 시달하면 経営者가 이것을 具体化하여 기업의 運営에 適用, 施行하고 있다. 製品의 種類, 生産高, 価格決定, 利潤의 直接分配 등을 行하는 이 <労動者自主管理>制度는 最近 共産圏에서 利潤方式의 採用이라 하여 各国이 導入하여 제 나름으로 施行하고 있는 実例이다.

위와같이 기업경영의 実態가 東西欧圏을 막론하고 合理的인 運営에로 그 体制를 改革하면서 보다 많은 利潤을 쫒아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수렴이론의 仮説을 前提로한 변화였든 아니든 間에 産業社会에로의 발전도상에서 나타난 特色인것 만은 틀림없다.

理念이 다른 두 体制이지만 単一化的 産業社会에로의 発展過程에서 接近을 통한 쌍방의 適応은 各己의 취약점을 초극하는 同時에 서로가 다른 相対方에 対해 많은 影響力을 미치기 始作할것 이라는 이 収斂理論 (J.Tinberger의 立場) 은 공산측의 비판처럼 단순히 資本主義 合理化의 변명論으로써 抬頭된것은 아니다. 六〇年

代 初부터 同理論이 欧美社会에 伝播되기 시작했을때 다른 나라에 比해 西独에는 同이론이 널리 普及되질 않았다. 우리처럼 分断의 비극을 안고있는 나라라서 分断民族의 再結合을 為해 宜当히 同이론이 더 많이 研究되어야 했을것이 오히려 그 反対現象을 보였든 것은 다음과 같은 理由였으리라 본다. 同이론이 抬頭되었든 六〇年代 初만 해도 西独의 政治的 분위기는 平和共存을 前提로 東独에 接近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社会主義와 대결해서 東独을 期於히 西独体制에 吸収하겠다는 式의 緊張된 状況이였다. 그러기에 接近해서 同質化를 피하고 나아가선 Positiv한 単一体制를 형성해 갈수도 있다는 同이론(R.Aron과 P.A.Sorokin의 社会学的 側面)은 지 때의 保守政客들에게 Realpolitik 에 利用할수있는 仮説이 못되었든 것이다. 그러나 지금 西方의 対東欧策 一環에서 적극적인 東方接近과 和解를 통해 "中欧에 있어서의 独逸人의 自由行為圏을 확대" 해 보겠다는 뷔브란트政権의 外交政策에는 収斂이론의 社会学的 側面의 These가 용납될수 있는 仮説이 된 것이다. 換言하면 接近과 交流는 体制間의 이질성을 해소할수 있고 또 弱勢体制가 優秀体制에로 収斂될수 있다는 仮説이 지금의 西独 政治風土와 進歩派 政客들에겐 首肯되는 것이다. 近来에 西独政府가 저들 東方政策의 基本戦略에 立脚해서 東欧와 従前보담 훨씬 活潑한 経済, 文化交流를 하고 있다. 이 적극적인 経済, 文化交流策이 収斂이론의 論拠에 바탕을 두고 行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国策의 機密이니 알수없는 일이지만 同施策을 東欧諸国은 収斂이론을 前提한것 이라고 비난하고 있다.[2)]

註 2) Willi Gerns:Konvergenz theorie und ihr Plat in der Auseinandersetzung zwischen Kapitalismus und Sozialismus. In:Marx Blatter.1968年6月号, p. 32

戰後의 学者들이 両極体制를 直視하면서 高度化되어갈 산업사회의 未来像을 予測한 仮説이 収斂이론이라고 볼때, 同仮説은 学的으로도 現代人이 首肯할수있는 充分한 論拠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질적인 두 体制의 接近과 融化과정에서 산업사회의 Optimal 한 単一体制 出現을 前提한 同이론은 급진적인 平和追従者에게 悪利用 当할때엔 平和共存의 基底위에 선 現存秩序를 破壊할수 있는 위험한 一面도 없지않아 있다. 例컨데 Ota Sik 의 新経済政策에 힘입어 急速히 共産独裁에 反하는 修正路線을 択했든 체코 自由化의 悲劇이 이미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 新左派의 새로운 世界観 형성에 悪影響을 미칠수도 있는 것이다.[3]

위와같은 収斂이론이 우리의 南北 再結合 試図에 適用될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筆者는 非政治的인 문제의 交流를 為해선 同이론의 適用이 可하다고 본다. 그러나 統一을 念願하는 同一民族의 意識構造를 同質化하련다는 眼目에서 同이론을 우리 南北対話 発展策의 論拠로 삼을려 하드라도 同이론을 段階的인 試図策과 어떻게 適宜 具体化하느냐의 문제는 계속 研究되어야만 한다.

註 3) 蘇聯을 비롯한 社会主義諸国의 生活向上이 資本主義에로 逆発展해 간다고 批判한 新左派를 가리킨다.